

12. 싱글도 괜찮은가? Is Singleness OK?



『혼자로 돌로(By Ones & by Twos)』에서 지니 로커비 스테펜슨은 “다른 미혼자들보다 이 분야에서 그녀가 가장 많은 일을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그 말이 다른 누구보다 그녀가 더 많은 것을 이뤘다는 의미로 생각했다. 그 후, 그 말을 한 사람의 의도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그만큼의 성과를 이룰 수 없다는 뜻을 알았다. 즉, 결혼한 사람들이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

싱글 선교사들이 결혼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의 현지인들과 다른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동성애자입니까? (동성애를 내포함)
- 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그 나이에는 결혼을 했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함)
-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싱글 둘이서 무엇인가를 같이하는 것은 분명 우정 이상일 것이라고 짐작함)
- 언제 결혼할 계획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해야한다고 내포함)

싱글 선교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들이 어떤 면에서 윤리적이지 않거나 열등한 것인가? 여기에 좀 더 고려해 봐야 할 점이 있다.

예수님

예수님은 비록 복음을 한 문화권에서 이 세상의 다른 문화권으로 전파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는 분명 다른 문화를 건너 오늘날 선교사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탄생시켰다. 빌립보서 2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집인 천국을 떠나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들 사이의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살기 위해 오셨다.

결혼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혼이셨고, 비윤리적이거나 열등하지 않았다. 만약 우리 주님이 전 인생을 미혼으로 살았다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바울

바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선교사였다. 사도행전에서 그는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했으며 예루살렘의 본부와 논의하면서 이동해 다녔다. 바울은 다양한 지역의 현지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들은 이제 신약 성서가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

바울은 독신이었다. 국교회 중 하나가 결혼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바울은 자신처럼 모든 사람이 독신이면 좋겠다고 말했다(고전7:7). 이 구절 이후에 나오는 두 문장에서는 싱글들을 향하여 자신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전7:8).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선교사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독신을 권했다. 그는 비윤리적이거나 열등하지 않았고, 문화를 넘나들며 사역했던 사람으로서 각광받는 예가 되었다.

싱글에 대한 성경말씀

예수님과 바울은 독신이면서 독신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많은 군중을 향하여 설교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혼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답한 것을 들은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마19:10).

예수님께서는 오직 일부의 사람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세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결혼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채 태어났다.
- 어떤 사람들은 거세를 하여 결혼할 능력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
- 어떤 사람들은 천국 일을 위하여 결혼하지 않는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결론을 내렸다. “이 말을 받을만한 자는 받을찌어다”(마19:12).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즐거움이라고 하셨다.

바울은 독신과 결혼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답변을 심도 있게 기록하였다. 독신으로 남는 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7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1절).
- 미혼자나 과부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다(8절).
-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면 배우자를 찾아 나서지 말아라(곧 임박한 환난으로 인하여 사람이 현재의 결혼여부를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26-27절).
-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나에 관한 하나님의 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32절).
-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기울어 있으므로 육적이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34절).
- 억지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결혼을 안하기로 다짐한 사람은 옳은 일을 한 것이다(38절).
- 결혼한 자는 잘한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은 자는 더 잘 한 것이다(38절).
- 남편이 죽은 여자는 신앙인과 재혼할 자유가 있으나, 바울은 오히려 그녀가 재혼하지 않으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39-40절).

반대로, 바울이 (싱글로 남기보다)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음란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둘다 결혼하여 각자의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2절).
- 만약 사람들이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면 욕망을 태우기보다는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9절).
- 결혼한 사람은 여러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바울은 그 문제들을 모면하게 해주고 싶어했다(28절).

- 결혼한 남자는 그의 아내를 어떻게 만족시킬지 세속적인 일들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아져 그의 관심사가 분산되게 된다(33절).
- 결혼한 여자도 그녀의 남편을 어떻게 만족시킬지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가있다(34절).
- 만약 나이가 들어가는 자신의 약혼녀에게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그 남자는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좋다(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깊게 해석한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독신은 결혼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다.

로마 가톨릭의 싱글 선교사들

많은 세기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의 독신인 신부와 수녀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했다. 이들은 독신(동정)으로 지내기를 서약하였고, 예수님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혼을 포기하였다”(마 19:12)라고 말씀하신 것을 글자 그대로 행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선교사로 섬기면서 남은 생애 동안 독신으로 남아있었다. 그들은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독신으로 남는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다양한 명령을 따라 수백 년 동안 전세계에서 섬기던 싱글 남성들이었다.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프란체스코회를 설립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St. Francis)이며, 수천 명의 프란체스코회 수사들은 800년 동안 모든 곳에서 섬겨왔다.

물론, 싱글 여성들도 선교사로서 섬겨온 사람들이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는 알바니아에서 태어나서 인도에서 사랑의 선교 수녀회 (Missionaries of Charity)를 설립한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일 것이다. 1979년에는 그녀에게 노벨평화상이 수여되었다.

개신교의 싱글 선교사

로마 가톨릭 교회와는 달리, 종교개혁 후에 개신교 선교사들은 주로 결혼한 사람들이었다. 싱글 선교사의 대다수는 여성이었다. 싱글 남성 선교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가장 잘 알려진 개신교의 싱글 남성 선교사는 데이빗 브레이너드(David Brainerd)였다. 그는 코네티컷 주에서 태어나 1747년 죽을 때까지 미국이 독립하기 전 30년 동안 뉴저지 주의 델러웨어 인디언의 선교사였다. 유명한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와 애도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과 같은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준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삶에 대해서 저술하였다. 에드워즈의 책은 당시 출판되지 않았고, 최근에 책으로 출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료나 저가로 킨들(Kindle)이나 녹(Nook)을 통해 인터넷 독자들에게 디지털 책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싱글 개신교 여성 선교사들은 비교적 많다. 20세기 초에 런던에서 태어난 글래디즈 앨리워드(Gladys Alyward)는 중국 선교사로 부름 받았다. 중국 내륙 선교회(China Inland Mission)에 의해서 거절당했을 때, 글래디즈는 사역하는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 받았던 중국으로 가야 하는 모든 비용을 다 써버렸다. 비록 영화 제작 시 자유에 대해 실망했을지라도 『여섯 번째 행복의 여관(The Inn of the Sixth Happiness)』이라는 영화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상영되었을 때, 그녀는 유명해졌다.

대략 개신교 복음주의 선교사들의 4분의 1정도가 싱글이고, 이들 중 대부분이 여성이다. 장기 선교를 가는 대부분이 결혼한 남성 선교사들이지만, 몇몇 싱글 남성 선교사들도 장기 선교를 간다. 그들은 1년, 2년 사역을 하지만, 그곳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정도로 오래 머물지 않는다. 또 현지인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할 정도로 충분히 머물지도 않는다.

결론

싱글 선교사들은 여전히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없는 세상과 지난 2천년 동안 수도사와 수녀들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봐라. 싱글 선교사들이 없다면, 오늘날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적을 것이다! 현재 선교사들의 힘의 4분의 1이 줄어든다고 생각해봐라.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20세기 후반에 항공 교통이 발달하면서 단기 선교나 1주일, 1-2년의 사역이 인기 있게 되었다. 싱글 남성 선교사들은 단기 선교 후에 선교단체를 떠나고, 오히려 많은 싱글 여성들이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돌아온다.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